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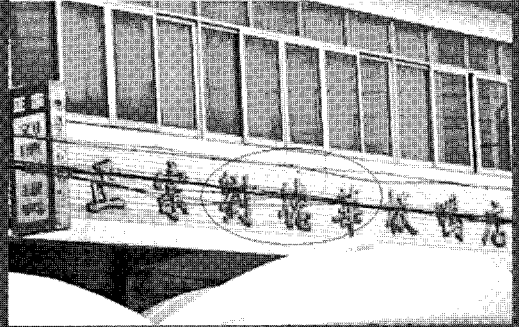
글 : 마이데일리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heibao@mydaily.co.kr)

중국

유덕화 VS 유덕화  
'유덕화납작오리'  
법적 싸움 비화

小潘评事：两个刘德华与板鸭的战争

http://www.yule.com.cn/2010-5-5 19:55:32 @ 优酷网 [字号：大 中 小]



▲쓰촨 승주 정통유덕화납작말린오리점. 중국위러망 보도 캡처

유덕화납작말린오리점 창업자로 알려진 중국 쓰촨성에 사는 장년 남성 유덕화씨가 영화배우 유덕화에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중국언론에 따르면 중국 쓰촨 승주에 거주하는 정통 유덕화납작말린오리점 창업자 유덕화(68.劉德華)씨가 최근 홍콩배우 유덕화(49.劉德華)에 명예훼손 이유로 법원에 고소를 당하기 앞서 상호에 관한 입씨름이 한창이라고 전해졌다.

쓰촨에 사는 유덕화씨는 지난 1980년 자신의 성명 유덕화를 그대로 갖다붙인 '유덕화납작말린오리전문점'을 개업해 30년 간 경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세자녀와의 식당경영이 줄곧 활기를 띄면서 최근 2층짜리 대형음식점으로 영업장을 확장한 상태.

그러나 음식점이 지역에서 큰 유명세를 타면서 홍콩 유덕화 측이 정통유덕화납작말린오리 상표가 영화배우 유덕화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표권 취소를 줄곧 주장해 왔다. 결국 지난달 말 등록상표쟁의판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음식점측에 상표취소를 압박하고 있다

고 중국언론서 전했다.

쓰촨 유덕화씨는 하지만 자신의 음식점이 지난 2004년 중국 국가공상국에 정통유덕화납작말린오리로 상표권을 신청, 2007년 상표권을 기취득한 상태로, 상표권 취소 압력에 절대 굴복할 수 없다는 입장.

영화배우 유덕화측의 고소 움직임과 관련, 그는 "고향 쓰촨 승주에서 납작말린오리점을 창업한 사람은 나 유덕화이고 홍콩 유덕화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유덕화란 이름으로 불려왔다"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납작오리점 창업자가 홍콩배우 유덕화가 인기를 획득하기 훨씬 앞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식당을 경영하기 시작했고, 그같은 풍속에 따라 뒷날 이뤄진 상표등록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중국 네티즌 호응이 나타나지 않자 유덕화측은 정의심판신청 철회에 대해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